롯의 처를 기억하라

Remember Lot's Wife

누가복음 9:61-62; 17:31-3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3월 11일 설교

(9) [61]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7) [31]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롯의 처를 생각하라. [33]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오르페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사제이면서 수금을 잘 타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게 물려 죽자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아내를 찾으러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저승으로 건너가는 배도 얻어 타고 저승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개 케르베로스도 부드럽게 녹인 다음 드디어 저승의 왕 하데스를 만나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데스의 부인 페르세포네가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앞서 가되 두 사람이 다 저승을 벗어날 때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페우스가 저승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보았더니 저승 문턱을 막 넘으려던 아내는 다시금 저승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몇 초만 더 참으면 될 걸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런 생각들 해 보셨지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져 돌아보았을까? 글쎄요. 하데스가 있는 저승 저 안쪽에서 입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동안 잘 참아놓고 마지막 몇 초를 못 참아 돌아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르세포네의 지시를 깜빡 잊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 가지만 골똘하게 생각하다가도 한 순간 깜빡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보았을까 하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건 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을 왜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데려가라고 허락했으면 그냥 보내주지 왜 구질구질하게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런 비극을 만듭니까? 뒤돌아본 오르페우스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런 조건을 붙인 여신 페르세포네도 참 얄궂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돌아본 이유는 사실 하납니다. 아내가 뒤에 정말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믿지 못해 돌아본 겁니다. 난 지금 앞에서 앞만 보고 갑니다. 아내가 뒤에 따라올 거라고 하데스가 말은 했지만 정말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승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승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만약 아내가 안 왔으면, 아내가 뒤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왔으니 다시 못 갑니다. 갑자기 의심이 생기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뿔싸, 아내가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승을 막 벗어날 참인데 내가 못 믿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다시 저승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별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작부터 예수님 허락을 받으려는 걸 보니 벌써 충실한 제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지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쟁기질이 뭔지 모르는 분들 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쟁기라는 큼지막한 도구로 밭을 가는데 힘 좋은 소가 앞에서 이 쟁기를 끌면 내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이 쟁기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입니다. 쟁기를 적당한 각도로 유지해야 되고 너무 깊거나 얕게 패이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눌러 주든지 들어 주든지 해야 됩니다. 또 넓은 밭을 갈 때는 줄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소가 똑바로 가도록 잘 몰아야 되고, 쟁기가 비뚤어지지 않게 잘 잡아야 됩니다.

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만 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앞을 주로 보지만 옆도 한 번씩 봐 주어야 똑바로 가지요. 가

끔 덜컥 하고 돌 같은 게 걸리면 아래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절대 볼 필요가 없는 방향이 하나 있지요? 예,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쟁기는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다가는 쟁기질이 엉망이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보다 힘들어집니다. 뒤를 돌아보느니 쟁기질을 안 하는 게 낫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신 이 말씀을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니 앞만 보고 가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은 "앞을 보라" 안 하시고 "뒤를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방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쟁기질에 전력해야 된다, 쟁기를 잡았으면 한눈팔지 말고 쟁기질에만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름

식구들을 보면 마음이 변할까봐 못 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할 마음이라면 차라리 가 버리는 게 낫지요. 인사도 하지 마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식구들하고 작별한다는 건 가서 다짜고짜 "바이!" 하고 오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식구들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양해라도 구해야지요. 적어도 내 입장을 설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구들이 놀라겠지요. 울고 말리고 심하면 욕도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래 좋은 분을 만났다니 기쁘구나" 하지는 않을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도 이미 주님 제자가 된 거겠지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식구는 안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서 집중은 안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안 잡고는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단 잡았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안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 놓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했으니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만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잠시라도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인륜을 무시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 4:20). 청소도 안 하고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삶이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 4:22).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곁에 있는 아버지한테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끊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쟁기를 잡았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한 눈 팔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 대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왜 갑자기 "뒤를 돌아본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 곧 롯의 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 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어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성행하고 폭력도 심해 마을을 찾아온 손님을 온 마을 남자가 동성 강간을 하겠다고 덤빌 정도로 패륜이 극심했습니다. 불법이 들끓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짓밟는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사 1:10-17). 그래서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려 온 성을 불태우실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는 살려 주셨습니다. 유황불을 내리시기 전에 천사들을 시켜 롯 부부와 두 딸을 소돔 성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롯은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소돔 성에 이민을 와 이제 지도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내 인맥, 내 영향력, 내 사는 재미, 이게 다 소돔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으면 동이 틀 때까지 머뭇거렸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한 두 천사가 한 손에 한 사람씩 네 사람을 잡아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살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는 몸이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성 다섯 개가 다 불에 탈 거니까 들에서 멈추지 말고 산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멀어 못 가겠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가장 가까운 소알 성으로 가게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성은 심판에서 빼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돌아보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롯은 지금 삼촌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내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덕에 목숨을 건진 롯과 식구가 몸의 목숨뿐 아니라 영의 목숨까지 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명령은 이제 이 소돔은 기억에서 싹 지워라. 꿈도 꾸지 마라.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소돔 성에 미련이 남아 밤을 꼬박 새운 네 사람이 이제 그 미련을 다 버리고, 소돔과는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보다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호기심이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인지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미련입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 소돔성에서 태어나 자라고 엄청난 부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나는 삶은 동성애, 폭력, 불법, 착취 등 타락과 죄악 속에서 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남편한테 얼마나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한 가지 명령, 어떻게 보면 참 지키기 쉬울 것 같은 그 명령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영생만 못 얻은 게 아니라 몸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 성을 벗어나 도망하던 순간은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는 와중에도 이 식구는 살려 주셨으니 구원이요, 몸이 산 것도 산 것이지만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으니 영혼의 구원을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롯과 두 딸이 나중에 그 기회를 살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확실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원문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은 지나간 일을 머리 속에 다시금 담는 일입니다. 회상이지요. 사건은 지난날의 것이지만 그 교훈은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노아 시대에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홍수가 온 것처럼, 롯 시대에 아무 이상한 일도 없던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닥쳤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챙길 물건이 세간인데, 그게 집안에 있어도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끝입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챙길 것 많겠지요? 돈도 챙기고, 중요한 기념품도 챙기고, 가족 앨범도 챙기고, 여권이나 영주권도 챙기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죽는다면 뭘 챙기겠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죽는데 뭘 갖고 가겠습니까? 가만있다가 그냥 숨만 멈추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죽는 경우라면 남은 사람이라도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 그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지붕에 있던 사람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고 있던 사람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앞에서 오실 거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만큼 놀랍고 엄청난 일이 없으니 집으로 간다든지 다른 생각일랑 아예 말라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문턱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다 잡았다 놓치면 아까운데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몸의 목숨도 아니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목숨을, 그 엄청난 복을, 다 잡았다 놓쳤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승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놓쳤다 하니 사람들이 눈물짓습니다만 갖은 고생을 해 거의 완성한 일이 완성 직전에 물거품이 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 스토리에서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데도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팔다가 기어이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이런 어리석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을 꼭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집에 다녀오게 해 달라고 주님한테 조를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말이지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해 놓고 정작 따르는 건 남들처럼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탐욕이고, 자존심이고, 내 기분이고, 내 성질이고, 내 교만이고, 내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걸 주님에게 달라고 하니 집에 좀 다녀오겠다 한 그 사람처럼 참 경건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를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신 주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잃어야 얻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 놓고 죽을 정도로 신뢰해야 됩니다. 잃어야 얻고 얻으면 잃는다 했습니다. 꽉 붙잡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나를 믿고 재물을 믿고 세상 권력, 쾌락 이런 걸 믿어야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잃은 다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못 합니다. 지금은 일단 죽어야 됩니다. 뭘 믿고 죽습니까? 죽으면 살려 주마, 지금 죽으면 영원히 살도록 해 주마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죽습니다. 롯의 처는 못 믿었지요.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보여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지금 죽어야,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죽으신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하였을 때 부활, 승천의 영광도 얻으셨습니다.

지나간 옛 이야기

옛날 사람들도 어렴풋이는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발로 걸어 저승을 다녀왔다 하니 참 허망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은 왜 붙였을까? 저승의 여신 페르세포네가 혹시 창세기라도 읽었을까?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듯한 조건인데 거기 담긴 뜻은 깊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모든 걸 망치는 줄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만 어겨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전해준 신화입니다. 옛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래 전 이야기 곧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일은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에덴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이 차고 넘쳤는데 하나님도 얄궂지 그거 하나가 뭐라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몸이 배부른 복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더 좋은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내 머리로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첫 인류가 실패했으니 그 기억이 모두에게 남은 거지요. 그 기억의 참 뜻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밝혀 주십니다. 똑같은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에서도 발견합니다. 배만 불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보다 표적을 보는 그게 복이라 하셨는데, 그 때도 사람들은 주님을 못 믿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두 주인은 안 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따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성령을 좇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성령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기로 했으면 육체에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육체로 사는 건 뒤돌아보는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뒤집어진 걸 깜빡 잊습니다. 주님, 집에 좀 다녀 오겠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내 신분을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주님 제자구나, 뒤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뒤돌아보다가 멸망한 롯의 처를 잊지 말자.

그래서 성령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을 가득 채우셔야지 그렇지 않고 빈자리가 생기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세간 가지러 내려가지 않게 도우십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한 눈 팔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은혜만 붙들게 도우십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데 뒤를 돌아볼 이유가 왜 이리 많은지, 무슨 요구사항이 이리도 많은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지요. 반대로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얄궂다 싶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안 보이는 것을 주시려는 큰 사랑, 곧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그런 조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는 게 까다롭다 싶을 때는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걸 주님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선택한 일은 없었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큰 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수경 목사)